

Cyclosporine과 Ketoconazole의 약물상호작용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험 2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김동원·표형찬·은희철·이유신

Cyclosporine은 1978년 사람의 장기이식 후에 따르는 거부반응을 막기 위해 최초로 사용된 이후로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여러 피부질환에도 사용되어 왔다. Cyclosporine은 간에서 cytochrome P-450에 의해 대사되는데 cytochrome P-450 활동도를 감소시켜 cyclosporine의 혈중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물들로는 ketoconazole, erythromycin, norfloxacin, corticosteroid, cimetidine 등이 있다. Cyclosporine은 최근 피부과 영역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한 여러 질환에 사용되고 있고 ketoconazole은 피부진균질환에 흔히 사용되므로 이들 2가지 약제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치료는 흥미있는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기존의 여러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cyclosporine과 ketoconazole을 병용 투여하여 소량의 cyclosporine으로도 적절한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임상적 호전을 보인 두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례 1은 36세 남자로 처음 cyclosporine을 매일 5mg/kg로 경구투여하여 피부병변의 호전을 보여 cyclosporine 혈중농도를 300ng/ml 이하로 유지하면서 cyclosporine 사용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ketoconazole을 병용투여 하였다. 현재 cyclosporine의 혈중농도를 300ng/ml로 유지하기 위해 cyclosporine은 2.5mg/kg, ketoconazole은 25mg으로 투여중에 있다.

증례 2는 19세 남자로 ketoconazole 200mg과 cyclosporine을 25mg에서 50mg으로 병용투여 하여 cyclosporine의 혈중농도를 300ng/ml 이하로 유지하면서 18주간 투여후 피부병변이 매우 호전되어 투여를 중지하였으나 현재 병변의 악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